

은행

산업이슈 브리프 |

Check Point

- 11월 가계대출 큰 폭으로 둔화. 주담대 순증규모 절반 이하로 축소
- 가계대출 억제기조, 코로나 19 금융지원 축소로 22년 대출증가를 둔화 예상
- 금리상승 영향으로 정기예금 증가 폭 확대되며 조달비용 동반 상승

11월 여수신동향: 가계대출 억제영향 본격화

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ebest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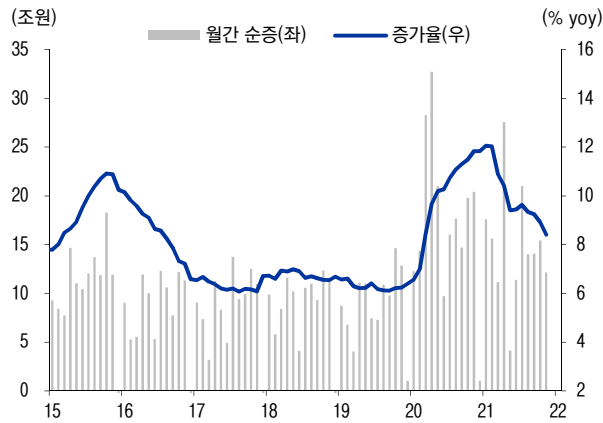
규제 영향으로 11월 가계대출 큰 폭으로 둔화. 수신부문에서는 정기예금 증가세

- ▶ 11월 예금은행 총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0월 대비 12.1조원 증가해 전월대비 0.6% 증가. 월간 순증규모는 10월(+15.4조원)과 3분기(7~9월: +16.3조원)에 비해 둔화되며 전년동월대비 10%를 상회했던 총대출 증가율이 11월 들어 8.4%로 둔화
- ▶ 11월 중 가계대출은 3.0조원 증가에 그쳐 일시적인 대규모 신용대출 상황이 발생한 올해 5월을 제외하면 2019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 은행권 신용대출 억제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10월에 이어 5,000억원 수준에 그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 역시 2.4조원으로 1~10월 평균 5.3조원에 비해 절반 이하로 축소. 주담대 위축 역시 은행권의 대출규제와 함께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 둔화, 집단대출 취급감소가 더해진 결과
- ▶ 기업대출의 경우 11월 중 9조원 증가하며 10월의 10조원과 유사한 순증규모 기록. 중소기업대출 증가 폭이 계절적 요인으로 크게 증가했던 전월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개선에 따른 시설자금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0%내외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 한편 수신부문에서는 결제성예금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고금리예금의 증가 폭 확대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연초 25%를 상회했던 결제성예금 증가율(yoy)은 17%로 둔화되었으며 금리상승에 따른 정기예금 확대로 고금리예금 증가율은 하반기 이후 감소세에서 벗어나 4%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 중

가계대출 억제기조 지속. 22년 대출증가를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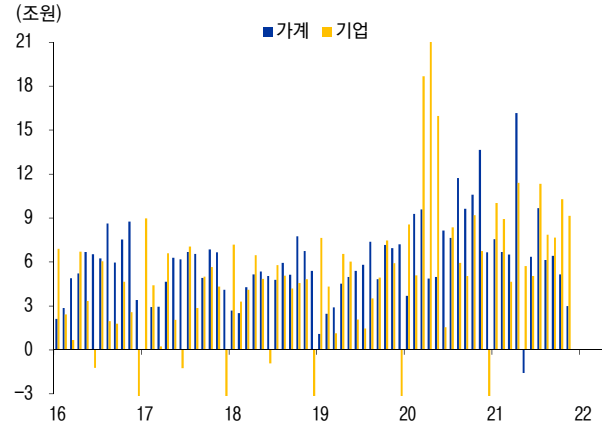
- ▶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재개된데다 연초 이후로는 신용대출 취급 또한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증가 폭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22년에는 가계부채 통제를 위한 규제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21년 대비 대출증가를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중소기업 대출 역시 금융지원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어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이 이어지긴 힘들 듯
- ▶ 수신 부문에서 정기예금 증가율이 높아지고 결제성예금 증가세는 추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조달비용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질 것이나 순이자마진 증가 폭은 21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

그림1 일반은행 총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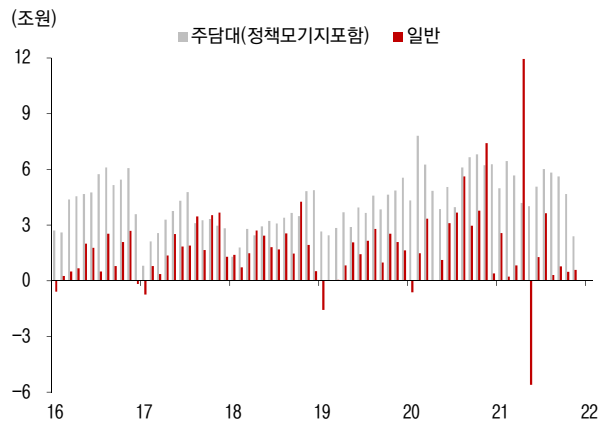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월간 순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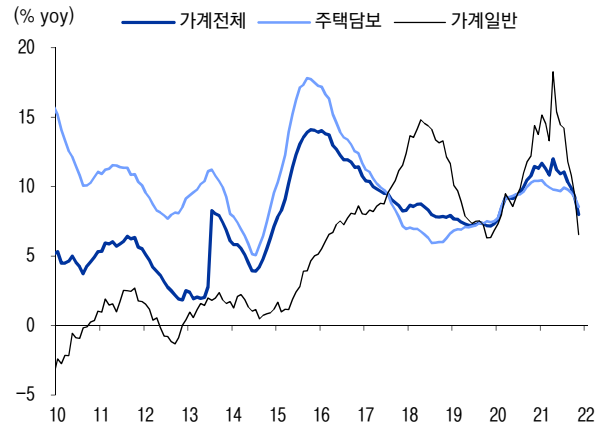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가계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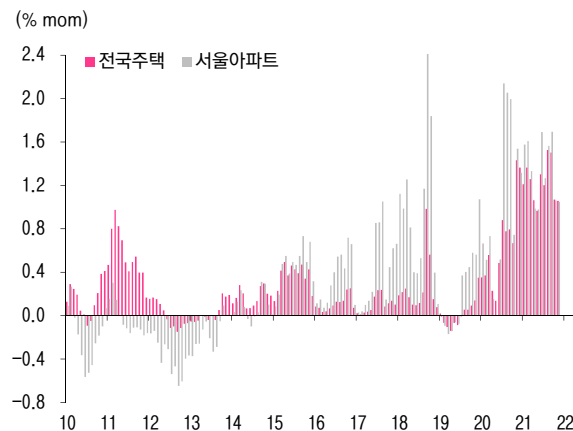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가계대출 부문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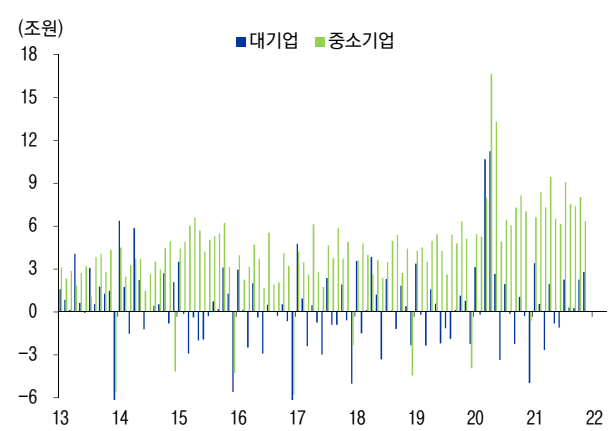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택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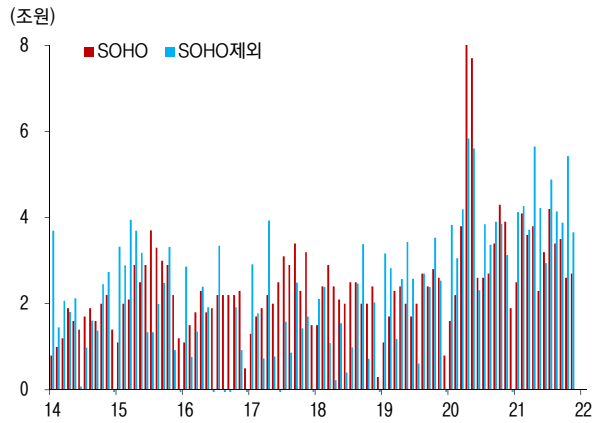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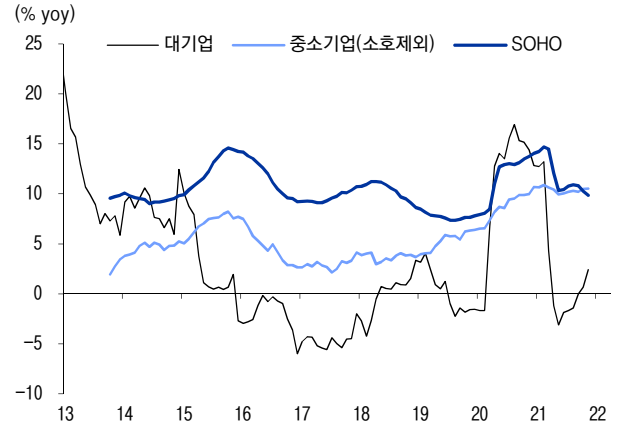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소기업대출 부문별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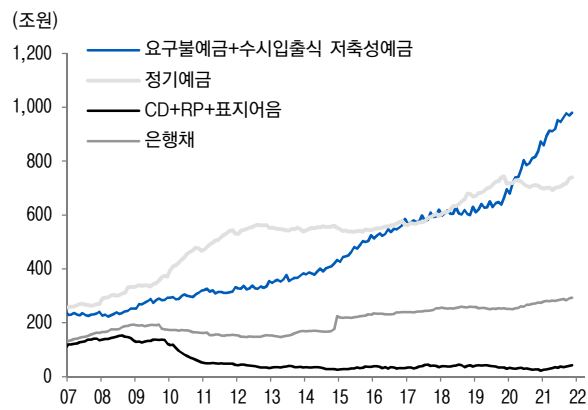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기업대출 부문별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총수신 추이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부문별 수신 증가율



자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6% 6.4% 100.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pm 20\%$ 에서 $\pm 15\%$ 로 변경 투자의견 비율은 2020. 10. 1 ~ 2021.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